

‘편집의 위기’로 편집자 위상 흔들린다

영국출판계 편집자 역할에 대한 반성 제기되며 활발한 토론

유은영

美위스컨신대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

최근 영국 출판계에서는 영국 편집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출판계의 변화하는 모습과 그 안에서의 편집자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저자 및 출판계의 관계와 위상 등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두고, 작품성도 인정받은 소설의 경우 제대로 되지 않은 편집으로 인해 논쟁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한 영국의 현대소설 비평가인 최근 발행된 소설에서 부적절한 편집 사례를 많이 발견했다고 밝히면서, 이는 영국의 편집인들이 자신들의 텍스트를 주무르는 것을 싫어하는 저자들의 성향에 맞서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높은 명성에도 불구하고 편집인의 손을 거쳐야 할 작가들의 예로 아이리쉬 머독(Irish Murdoch), 잭 히긴스(Jack Higgins), 살몬 루시디(Salmon Rushdie), 마틴 아미스(Martin Amis)등을 들고 있다.

서평가, 도서상 선전자 및 일반 독자들도 영국 출판의 편집 기준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다. 문법적인 실수, 부정확성, 논리의 결여, 문장 구조 및 단어에서 발견되는 흠 등에 대한 질책은 저자 뿐 아니라 편집자에게도 돌아간다. 편집자들은 흔히 저자들을 구조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평가되며, 가끔은 진짜로 그러한 일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편집자들이 어떤 작품을 살려내는 훌륭한 역할을 했다 하더라도 그 업적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또한, 편집이 제대로 되지 않은 책일지라도 마케팅과 같은 판매와 직접 연결되는 분야의 노력에 힘입어 상업적 성공을 거둘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편집자들이 출판계에서 자신들의 가치를 증명해보이는 일은 쉽지 않다.

편집은 핵심적인 업무가 아니다

편집자의 역할은 지난 20년동안 지속적인 변화를 보여왔다. 편집자란 직책은 크게 세가지 활동을 포괄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첫째는 작품 취득 및 제작의뢰 업무, 둘째는 책의 구조와 내용에 관해 저자와 함께 일하는 것, 셋째는 구체적인 원고정리, 내용과 포맷 등에서 잘못된 것을 찾아내는 것이다. 규모가 작은 출판사에서는 한 사람이 이 세가지 일을 다 책임질 수도 있고, 가끔은 일들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 위의 세 업무는 확연히 구분되며, 각각의 일에 종사하는 편집자의 지위도 다르다. 보통 첫번째 역할은 다른

두 업무에 우선한다.

실제로 ‘편집’을 하는 편집자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많은 편집자들이 원고를 다루는 일이나 저자와 일하는 것보다 한 수 위의 일을 하려고 한다. 이는 편집자들의 개인적인 욕심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편집은 대행사에게 맡기고 작품 취득에 열중하기를 바라는 회사 또는 출판계 전체의 분위기가 편집자들에게 압력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그래야만 출판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영국의 경우 편집 업무는 오랫동안 출판계에 종사하기를 바라는 많은 젊은이들의 가장 인기있는 직종이었다. 그들은 편집업무를 통해 세련되게 조율된 문장으로 독자들을 매혹하고, 어떤 작품을 베스트셀러로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작가의 창작 과정을 여유롭게 논의하고 마음에 그리는 경험을 하고 싶어했다. 그러나, 이 직종을 지망하는 젊은이들이 상상하는 이 업무의 위상은 돈을 염두에 두는 경영진이 생각하는 위상과는 항상 잘 들어맞는 것은 아니다.

한 출판인은 영국 출판인들은 편집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갖고 있으므로 편집자들에게 진정한 ‘편집자의 지위’를 보장하는 미국의 예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영국 출판계에서 편집은 책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책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것은 오히려 마케팅 예산이다. 편집자들도 편집 외에 다른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편집일은 여가 시간에 하고 있다. 한편, 작가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편집자가 인원감축, 가로채기, 승진을 위한 이동 등의 위협에 의해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편집대행사에 그들의 원고 편집을 의뢰하는 실정이다. 한때는 모든 출판사의 본질적인 업무로서 오랫동안의 교육을 거쳐 세심하고, 이는 것이 많고, 경험있는 편집자들이 팀을 만들어 해오던 편집이 이제는 프리랜서들에게 맡겨지고 있다.

편집자들은 인원 삭감 일순위이다

원고 담당 편집자를 두어 왔던 많은 출판사들은 그 숫자를 감축해왔다. 또한 그들의 실적에 대한 금전적 보상도 좋은 편이 아니었다. 모든 단계에 있어서 편집은 시간을 많이 요하는 일이며, 값비싼 보상을 받아야 할 가장 민감한 타격을 받을 업종이다. 경기침체 때마다

최근 영국의 출판편집자들은

그들의 고유업무인 ‘편집’ 일은

아예 편집대행회사에 맡겨두고,

‘물건’을 얻느라 동분서주하고 있다.

한해 30권의 책을 만드느라

잘 만들어진 책이 드물어지고 있다.

그러나 스테디셀러는 편집 측면에서도

완성도가 높은 책이라는 점에서,

출판사는 편집자의 편집과정에

관심을 지녀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편집자들은 가장 먼저 인원 감축의 대상이 되고 가장 늦게 복귀되는 대상이었다.

직위의 불안정성과 그것의 결여가 결합되어 편집자들은 더 이상 그들의 업무를 제대로 해 낼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그 토대도 허물어지고 있다. 자신의 지위가 보장되었고 시시한 상황에서 자본가에게 맞서 제대로 된 책을 만들려면 더 많은 시간과 인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회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편집인일지라도 그 일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는 없을 것이다.

몇몇 편집자들은 전환점에 놓인 편집자들의 역할과 위상에 대해 의견을 토로한다. 블룸스베리(Bloomsbury)사의 리즈 칼더(Liz Calder)는 “편집자들의 힘은 줄어들고 있으며, 편집자로서 회사의 최고 지위까지 오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지적하면서 편집자들이 모든 단계에 있어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편집자들의 의견은 경청되어야 하며 영업이나 마케팅 분야의 의견과 똑같은 비중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녀는 “사람들은 편집이 파란색 펜에서 시작되고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좀 더 광범위한 상황에서 이를 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케이프(Cape)사의 단 프랭클린(Dan Franklin)도 편집자들에 대한 평가절하가 극단적으로 위험한 수준에까지 이르렀다고 진단한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편집자들은 마케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지만, 마케팅 분야의 사람들은 편집과정에 영향을 미칠수 있으므로 “마케팅 사람들이 원고도 보지 않고 작품을

사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한다.

편집자들을 존경하고 그들의 가치를 인정하는 출판사의 경우에도 편집업무는 ‘시간부족’이라는 다른 압력을 받고 있다. 제작기간은 점점 짧아져서 5월에 사들인 책을 가을에는 출판하여야 하는 경우도 많다. 이는 가격 상승을 부채질할 뿐 아니라 원고 손질 및 제작에 한치의 여유도 두지 못하게 만든다. 편집자들은 저자와 함께 원고를 손질할 기회를 갖기 어렵게 되며, 출판의 전 과정은 정신없이 서둘면서 이루어진다.

시간은 부족하고 일은 많다

시간 부족의 문제는 집합화와 경기침체로 인한 편집인원 감축 등에 의해 최근들어 악화된 문제이다. 이 점에서 볼 때 지금의 출판계는 과거와 다르다. 많은 고참 편집자들이 그들이 처음 편집일을 시작했을 때 그 일에 어떻게 헌신했었는가를 회상한다. 단 프랭클린은 그가 처음 편집일을 시작했을 때 피터 오웬(Peter Owen)의 작품 하나에 일년 이상을 몰두했다고 기억한다. 소설 비평가인 테일러(Taylor)는 그의 첫 소설이 세커(Secker)사에서 출판될 때, 그와 그의 편집자가 보장되었는 선금을 받고도 며칠 낮 며칠 밤을 그 작품에 대한 제안과 토론으로 보냈던 것을 기억한다. 그는 그뒤 삼개월간의 조정기간을 거쳐 실제 책 제작에 들어갔었다고 회상하면서 그 당시 세커사에는 28명의 편집자들이 있었는데 현재는 4명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다. 이러한 인원 감축의 와중에서 편집자들의 임무는 ‘편집’이 아니라 ‘인쇄’에 더 가까워지는 경향이 있다.

이 점에서 미국의 출판은 영국보다 이점을 갖고 있다. 미국의 경우 시장규모가 편집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도록 허용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편집자들은 일년에 일인당 여섯권에서 열권의 책을 다룬다. 반면, 영국의 편집자들은 삼십권의 책을 만든다. 미국 편집자들이 더 숙련되고 일에 더 몰두하는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들은 한 책에 대해 영국 편집자들보다 세배의 시간을 더 소비할 수 있다. 작품성의 측면에서 뿐 아니라 편집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베스트셀러가 된 영국의 책들중에는 미국의 편집으로 책이 마무리된 경우가 종종 있다.

미국의 이러한 성공은 단지 시간이 많기 때문만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국 편집자들

은 실제로 더 숙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하퍼 콜린스사의 한 편집자는 미국 출판은 문장 구조 및 행 편집에 있어서 철저함을 강조하는 전통을 갖고 있으며, 저자들도 자신들의 작품이 편집되기를 원하는 편이다. 더구나, 미국에서 유행하는 문예창작 코스 덕분에 평균적으로 미국의 책들은 원고단계에서도 꽤 괜찮은 수준에 있다. 그러나, 미국은 그야말로 '편집'만을 주장하는 경향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 작품의 문학성을 살리는 데는 부족한 감이 없지 않다. 이 면에서는 영국이 제대로 하고 있다는 평이다. 즉 영국의 경우는 좋은 작가들이 많으므로 편집자들이 작품에 손을 많이 댈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편집자는 가볍게, 섬세하게 또는 민감하게 작품을 손질하면 된다.

미국의 경우 너무 문학적인 문체를 사용한 작품은 그것이 아무리 인정받는 작품이라 할 지라도 출판하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책을 출판할 경우에는 저자의 바람과 자질 그리고 편집자의 의견이 마찰을 일으키기도 한다. 그러나, 책에 이름이 찍히는 사람은 편집자가 아니라 저자임을 누구든 알고 있다. 그러므로, 편집자들을 책망하는 서평자들은 저자와 편집자들간의 갈등이 얼마나 큰가를 먼저 헤아려야 한다. 또한, 편집자들은 과도한 편집은 의사가 잘못된 진단을 내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험한 일임을 인식하고 저자의 동의없이 문장을 고치거나 내용을 바꾸는 일은 삼가야 한다.

영국의 편집이 가야 할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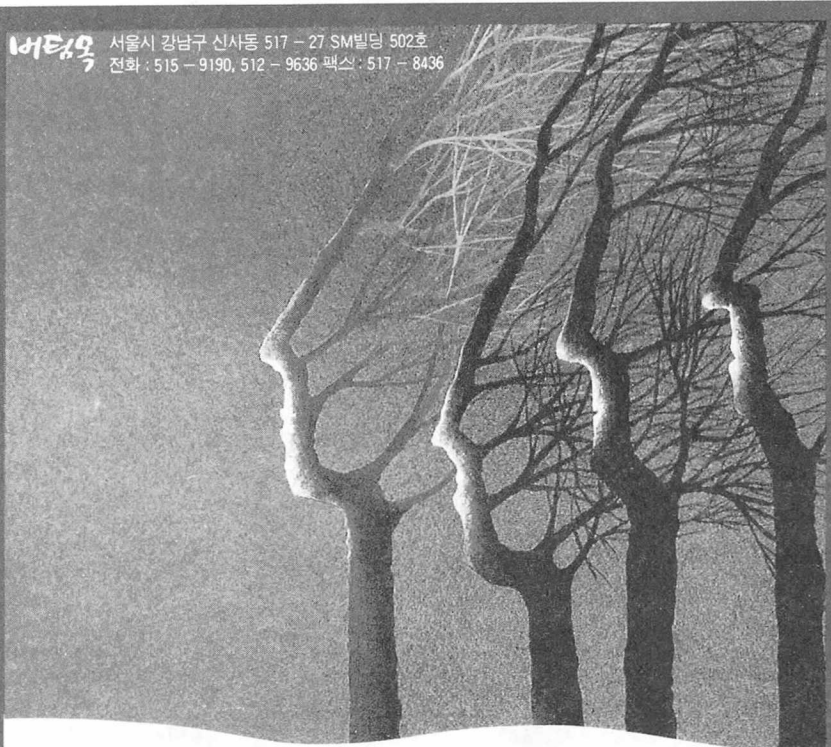
영국의 편집자들은 일반적으로 놀라운 자질을 갖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편집자들이 사회적 지위의 결여, 지원 부족, 편집 외의 다른 일을 해야 하는 외부압력, 시간의 부족, 비타협적인 저자들 때문에 그들의 높은 자질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편집자들은 자신의 독서와 경험을 토대로 편집에 대한 자질을 '독학'으로 배운다. 그러나, 공식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수준의 자질을 갖출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대두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북하우스 트레이닝 센터의 강좌나 기타 다양한 문예 창작 및 편집 강좌들이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지만, 편집, 특히 픽션의 편집은 주관적인 것이며, 작품을 손질하여 전

체적인 질을 향상시키는 능력은 "마술과도 같다"고 보는 견해가 더 지배적인 것 같다. 이러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원고정리나 논픽션 편집은 "신으로부터의 선물"이며, 이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사물을 올바르게 만들어 놓으려는 생각을 강박관념처럼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훌륭한 픽션 편집은 기술이라기보다는 예술에 가깝다.

지난해에 '올해의 영국 편집자상'을 수상한 다이안 피어슨(Diane Pearson)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편집은 일종의 타고난 소질이다. 교육을 통한 효과는 거의 없다. 유일한 방법은 정말 책을 사랑하고 평생을 독서하면서 저절로 습득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그녀의 경험을 통한 의견이다.

그러면, 잘못된 편집은 어떤 문제를 야기할까? 좋은 서평을 받지 못한다는 당연한 결과는 차치하고라도, 제대로 되지 않은 편집은 미적인 면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상업적인 면에서도 그러하다. 제대로 편집되지 않은 책이 가끔은 베스트셀러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이 그리고 오래 팔리는 책은 편집면에서도 완성도가 높아야 한다. 또한 잘 편집된 책은 저자를 기쁘게 만들어 준다. 출판사의 입장에서 잘못 편집된 책이 한번 우연히 많이 팔리는 것보다는 저자와 장기적인 안목에서 비즈니스 관계를 수립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므로 잘 팔리는 책을 만들려는 노력은 잘 편집된 책을 만들려는 노력과 통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편집에 있어서 마무리는 반드시 필요하다. 마케팅 개념에 기초하여 볼 때 케케묵은 쓰레기는 팔리지 않는다. 잘된 편집은 출판사가 저자와의 관계를 지속한다는 의미일 뿐 아니라, 저자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현재 문제가 있는 출판사는 편집과정에서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회사이다. 출판에 있어서 중추적인 관계라 할 수 있는 저자와 편집자와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출판사는 사활을 걸고 이 관계를 지키도록 해야 한다.



'스턴트맨 정사용' 그의 마지막 연기는 NG였다

MBC TV 『인간시대 - 어느 스텐트맨의 죽음』의 실제 주인공 정사용을 소설화!

그리고 그는 날아가는 화살처럼 우리 곁을 떠나 갔다.
『인간시대』를 통해 최초로 알려진 죽음의
사각지대 스텐트 액션!
그의 죽음이 남긴 이 한편의 소설 『광야에 눕다』는
영원히 살아 여러분 곁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김재찬의 소설 [광야에 눕다]에서 나는 이 우주 속에서 사라지고 거울 속의 나도 아닌 철저한 나의 타인이 횡행한다. 어쩌면 나는 그 타인의 거울에 비친 타자일런지도 모른다. 나는 대중의 착각효과를 위해서 거울 속에서 불타고, 거울 속의 나의 실재는 불에 그을리기는 커녕 진한 오렌지 주스로 목을 축이는 중이다. 거울 속의 네가 죽어도 그는 죽지 않는다. 거울이 깨진다. 그는 나를 죽이고 그의 우주로 돌아간다.

— 詩人 함성호

전2권 각권 값 5,000원

'87 문학정신 창간기념 장편공모 당선작가 '94 한국일보 신춘문예 당선작가

김 재 찬 장 편 소 설
광야에 눕다